



용기포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Suggestion on Safety Management in Food Packaging

최근 국민의 생활 패턴이 서구화되고 식습관이 현대화됨에 따라 식품포장과 관련된 환경 또한 많이 달라지고 있다.

첫째로 과거에 비하여 포장되어 유통되는 식품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개별 포장 또한 점차 소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식품이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의 표면적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둘째로 포장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포장의 기능이 증가하여 식품의 유통기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하여 식품이 포장과 접촉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셋째로 포장된 상태로 가공, 조리하는 식품의 비율이 증가하여 포장의 사용 조건이 점차 가혹해 지고 있다.

따라서 합성수지 포장재의 경우, 잔류할 수 있는 원료물질이나 첨가제들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보다 늘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로 인한 국민의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식품 안전에 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은 세계 어느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높아져 이제는 완전히 검증된 안전한 포장재가 아니면 국내 어느 곳에서도 식품포장으로는 발붙이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민의 관심은 언론보도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정보의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떤 지역의 한 가지 이슈는 더 이상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



이영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과 과장

해외규제 동향 파악해 능동적 대처 필요

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포장의 안전에 관한 이슈는 이제 어느 한 국가 또는 어느 한 업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식품 업계에서는 과거 식품 포장 재료의 선정에 있어서 가격, 외관, 기능성 등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포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된 것이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정부에서도 급변하는 해외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도모는 물론 국제적인 무역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식품 이외의 다른 포장 재질들과 마찬가지로 합성수지계 용기포장은 석유화학 원료에서 출발하여 제조되므로 원료물질 및 첨가제 자체는 글로벌화되어 국제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관리측면에 있어서 식품용 용기포장이 여타의 포장재들과 다른 점은 식품이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소비될 때까지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유통되므로 용기포장의 안전성은 사용되어지는 환경 즉 식품과 연계하여 평가되

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는 해당 국민의 포장 사용실태와 식이 섭취 패턴 등을 고려하여 포장된 식품의 소비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용기포장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 용기포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간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기준 규격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통상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 자료 마련에 좀더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용기포장의 안전관리가 무의식 중에 업계의 이익에는 상충하는 개념으로 정부만의 문제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글로벌화, 네트워크화 되면서 한 가지 사회문제는 순식간에 이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구성원 공동의 문제로 파급되는 현대에 있어서는 용기포장 안전관리도 우리나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